



2018 서울한옥박람회 개막식 개최... '한옥의 매력에 빠지다'

기사승인 [2018-05-31 18:31]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18 서울한옥박람회' 개최식에서 김덕룡 서울한옥박람회 조직위원장(아시아투데이 고문·오른쪽 세 번째)과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가운데), 김홍남 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이사장(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아시아투데이 이철현·맹성규·김지환 기자 = '2018 서울한옥박람회' 개막식이 31일 오후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룡 한옥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아시아투데이 고문),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김홍남 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이사장, 정문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장, 강성길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 본부장,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준봉 현대한옥학회 회장, 신영균 온지음 운영위원장, 이가락 대한민국전통기능전승자회 회장, 이광복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수석부이사장, 이근복 국가무형문화재 121호, 이유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원장, 이정희 국제보자기포럼 대표, 이철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 홍성길 영주시 자치행정국 국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 인사들은 개막 행사에서 테이프 커팅을 가진 후 장인전시관과 무형문화재기능인협회·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명품 고택 홍보관 등에 전시된 작품들을 직접 관람하면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

었다.

특히 “전통문화를 의·식·주로 분류해 한 지붕 아래 ‘옷공방’, ‘맛공방’, ‘집공방’을 만들었다”고 밝힌 온지음연구소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한옥박람회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amaranth2841@asiatoday.co.kr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PRINT

CLOSE